제14권 3호
2024. 1. 29~2024. 2. 18

행복한 금융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
이슈분석	은행권 개인사업자 상생금융 행보의 의의
금융경영브리프	BNP Paribas, APAC 자산관리 사업 확대 지수형 보험의 활용과 기회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견조한 美 GDP에 경기 연착륙 전망 강화 외 환 : 1월 FOMC 이후 방향성 탐색 부 동 산 : 심리 위축, 부채 부담 커지며 하락 전환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인간

연구자는 사람,+ 고객은 사람++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사람을 바꿔야 합니다.
현실에 기초한 진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 신뢰를 창조하는 것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사명입니다.

집필진

편집

선임연구위원 장보형(jangbo)
연구위원 김영준(kimekono)
연구원 송형은(hesong)

논단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준혁

이슈분석

수석연구원 신상희(sanghuishin)

금융경영브리프

연구위원 이재완(jwan.lee)
연구원 진옥희(okheejin)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연구원 윤석진(sjyun826)
외 환 | 연구위원 오현희(hyunheeoh)
부동산 | 수석연구원 하서진(seojinha)

금융지표

연구원 진옥희(okheejin)

내용에 대한 문의나 건의사항은 담당연구원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ID@hanafn.com)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제14권 3호
2024. 1. 29~2024. 2. 18

하나금융그룹

하나금융 포커스

Bi-Weekly Hana Financial Focus

01	논단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
04	이슈분석	은행권 개인사업자 상생금융 행보의 의의
08	금융경영브리프	BNP Paribas, APAC 자산관리 사업 확대 지수형 보험의 활용과 기회
12	금융시장모니터	금 리 : 견조한 美 GDP에 경기 연착륙 전망 강화 외 환 : 1월 FOMC 이후 방향성 탐색 부 동 산 : 심리 위축, 부채 부담 커지며 하락 전환
18	금융지표	국내 금융시장 해외 금융시장

* 다음호(제14권 4호)는 설날 연휴로 인해 2월 19일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

정 준 혁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개선 과제를 꼽으라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해소를 들 수 있겠다. 국내 상장회사 주가가 저평가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무엇보다 일부 지배주주의 과도한 사익편취와 투자자 보호 미흡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최근 개인투자자의 증가와 함께 위 문제 해결을 위한 금융당국의 다양한 법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도약을 위해 법제도 개선과 함께 시장 기능을 통한 통제가 균형 있게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가장 중요한 개선 과제를 꼽으라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문제를 들 수 있겠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란 우리나라 상장회사의 주가가 순자산가치나 수익성이 비슷한 다른 나라 상장회사의 주가에 비해 낮게 평가되는 현상을 말한다. 자본시장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21년 기간 중 국내 상장회사의 PBR(주가순자산비율)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 亞太 국가의 69% 수준에 불과하다고 한다. 비슷한 실적을 보이더라도 우리나라 상장회사 주식이 선진국 상장회사 주식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밖에 평가받지 못하는 것이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는 우리 자본시장의 중요한 개선과제임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과 개선 필요성

우리나라 주식이 유독 저평가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다양한 원인이 제시된다. 상장회사들의 낮은 배당 성향, 국내 산업구조 측면에서 기인하는 낮은 수익성, 또한 외환시장 관련 규제나 지정학적 위험성으로 인한 외국인 투자 유입 부족 등이 그것이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문제, 보다 구체적으로 지배주주의 사익편취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다.

지배주주의 과도한 사적이익은 주식시장 저평가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우리나라 거의 대부분의 상장회사에는 회사의 지배권을 행사하는 지배주주가 존재한다. 지배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의 주가란, 지배권이 없는 일반주주 보유 주식에 대해 시장이 평가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주가는 지배권이 없는 일반주주들 간의 거래를 통해 형성되기 때문이다. 지배주주는

* 본고의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배당과 같이 주식 비율에 따라 비례적으로 귀속되는 현금흐름 이외에도 내부거래, 과도한 수준의 보수, 사업기회의 유용 등을 통해 회사로부터 추가적인 이익, 이른바 지배권의 사적이익(private benefit of control)을 누릴 수 있다. 따라서 전체 주식가치가 같더라도, 지배주주가 누리는 사적이익이 크다면, 일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 즉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주가는 사적이익이 적은 회사에 비해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M&A 시장에서는 우리나라 기업의 디스카운트 문제가 특별히 없음

우리나라 상장회사는 일반적으로 지배권의 사적이익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거래소에서의 주가, 즉 일반주주의 주식가치는 낮다는 평가와 달리, 지배권이 이전되는 M&A 시장에서 국내 기업들의 주식가치는 비교적 적절한 평가를 받고 있다. 실제로도 우리나라 M&A 거래에서의 경영권 프리미엄은 적게는 10~20%에서 많게는 200%를 넘을 정도로 높게 형성된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경영권 프리미엄이 그대로 지배주주의 사적이익을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지배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M&A에서의 거래가격)와 일반주주가 보유하는 주식의 가치(거래소에서의 주가) 간에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해결은 위 두 가격 간의 격차를 줄이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그런데 지배권 사적이익의 규모가 크거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보유 주식 가치 간에 차이가 있더라도 별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 상장회사 주식은 비슷한 실적의 다른 나라 상장회사 주식에 비해 저가에 매입할 수 있으므로,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 때문에 이를 나중에 낮은 가격에 매각하더라도 특별히 손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지배주주가 일반주주들을 대신하여 회사 경영진을 감시(monitoring)하기 때문에 지배주주가 어느 정도의 사적이익을 누리는 것이 일반주주들 입장에서 반드시 손해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다.

지배권 사적이익이 클수록 전체주주 이익에 반하는 의사결정이 이루어짐

그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심할수록, 또 지배권의 사적이익이 클수록 지배주주가 전체 주주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의사결정을 할 유인이 높다는 점에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예를 들어 30%의 지분만으로 회사를 지배하는 지배주주라면, 회사가 100원의 자금으로 배당을 실시하여 이를 지배주주와 일반주주가 각각 30원과 70원으로 나누어 받기보다는, 50원의 자금으로 지배주주에게 높은 보수를 지급하게 하거나 불공정한 자기거래를 통해 사적이익을 편취하는 것을 선호한다. 회사에 대한 인수

제안이 오더라도 전체 주주가 비례적으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합병보다는 지배주주만이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지분을 매각하는 주식양수도 거래를 선택할 유인을 갖는다. 이처럼 지배주주가 낮은 지분만으로 상장회사를 지배할수록, 또 지배권의 사적이익이 크면 클수록 지배주주는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법제도 개선과 시장을 통한 통제

지배권의 사적이익 통제는 1997년말 금융위기 이래 우리나라 기업지배구조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형법 등 다양한 법률들을 통해 지배주주의 횡령 등 각종 사익편취를 통제하려는 시도가 계속되었다. 2010년대 들어서는 법률 개정을 통해 자기거래, 일감 몰아주기, 회사기회 유용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었다.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이 활발히 이루어짐

상장회사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의 숫자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자본시장 법제도 개선도 지난 1~2년 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2022년에는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정책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하고, 의무공개매수 및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 도입, 배당기준일 제도 개선, 물적분할 후 재상장 제도 개선, 자기주식 관련 제도 개선, 전환사채 관련 투자자 보호, 불공정거래 과징금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일반주주 보호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 방지와 일반주주 보호가 자본시장 법제도의 핵심 과제로 자리 잡히고 있다.

법제도 개선과 함께 시장 참여자의 역할을 통한 사후적 통제가 조화를 이뤄야 함

그러나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를 법제도 개선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다. 자본시장 개선에는 일반적으로 법률과 함께 시장과 법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의무를 위반한 이사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추궁하는 주주대표소송이 매년 한 자릿수에 불과하고, 이사나 지배주주가 구체적으로 어느 경우에 책임을 부담하는지와 관련한 판례의 축적이 다소 부족하다. 여러 법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시장이나 법원의 역할은 아직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지배주주의 사익편취를 통제할 시장 참여자의 역할이 더욱 활발해져야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균형 있는 투자자 보호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의 해소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은행권 개인사업자 상생금융 행보의 의의

신 상 희 수석연구원

코로나19 시기 이뤄진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개인사업자의 경영 악화 및 부채 증가를 유발하였고, ’21년부터 시작된 고금리 기조는 취약 개인사업자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심화하였다. 이로 인해 개인사업자에 대한 상생금융 요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면서, 은행권은 최근 이자 환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금융 지원방안을 발표하였다. 이는 개인사업자의 니즈에 부합하지만, 상생효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한 비금융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24년에도 은행의 상생금융 활동은 지속·확대될 전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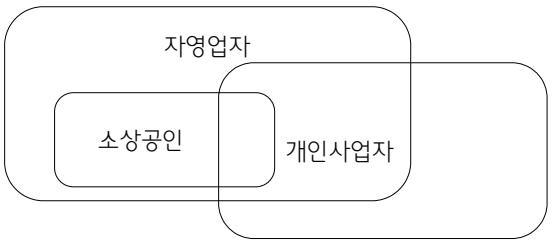
■ 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경제 주체이자 은행권의 핵심 손님

-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며, 이중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은 영리기업의 대부분을 차지
  - ’23년 3분기 우리나라의 전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 비율은 20.1%로 미국 6.6%(’21년), EU 14.5%(’21년), 일본 9.6%(’22년) 등보다 높은 수준 (통계청, OECD)
  - ’22년 기준 종사자 또는 매출액이 있는 영리 기업 735만 곳 중 89%(651만 곳)가 개인사업자이며, 94%(692만 곳)가 소상공인 (국세청)

- 대출 및 금융서비스 수요가 큰 개인사업자는 은행의 주된 손님군에 해당
  - ’23년 9월말 기준 4대 은행(하나, 국민, 신한, 우리) 기업자금 대출액의 43.1%(256조원)가 개인사업자 대상으로 실행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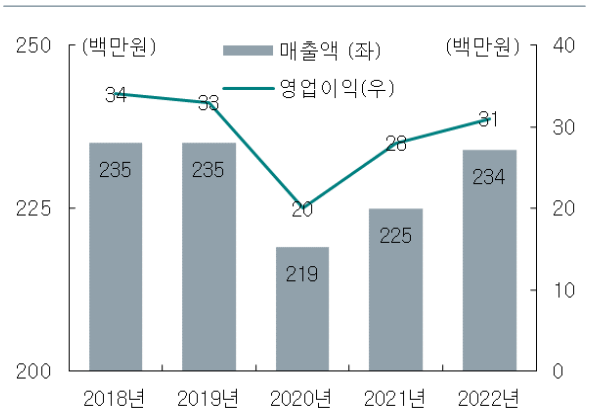
■ 자영업자·개인사업자·소상공인 개념

자영업자	非임금근로자 중 고용주 및 자영자를 포괄한 개념
개인사업자	조직형태가 ‘개인사업자’인 기업
소상공인	소기업 중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등이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는 기업



자료 : 하나금융경영연구소 · 더미래연구소

■ 소상공인 주요 경영지표 변화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통계청

■ 코로나19 시기 동안 이뤄진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은 개인사업자의 경영 악화 및 부채 증가 유발

- ’20년 코로나19의 국내 상륙 이후 크게 감소하였던 소상공인의 매출액·영업이익은 점차 회복되어가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19년도 수준에 소폭 미달
  - 소상공인 연평균 매출 및 영업이익 [대괄호 안 영업이익] :
    (’19년) 2억 3,500만 원 [3,300만 원] → (’20년) 2억 1,900만 원 [2,000만 원] → (’22년) 2억 3,400만 원 [3,100만 원]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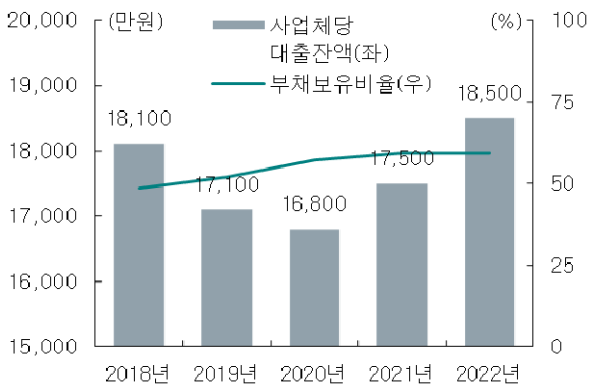
- 코로나19를 거치며 소상공인의 부채보유율 및 사업체당 부채금액이 모두 증가함에 따라 자영업계 전반의 대출 잔액 또한 빠르게 증가
  - 소상공인 부채보유율 : (’19년) 51.9% → (’22년) 59.3%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 소상공인 평균 부채금액 (부채를 보유한 사업체 기준) : (’19년) 1억 71백만 원 → (’22년) 1억 85백만 원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 자영업계 대출잔액 [대괄호 안 전년 동기대비 증가율] : (’19년 4분기) 686조 2천억 원 [+9.4%] → (’20년 4분기) 803조 5천억 원 [+17.1%] → (’21년 4분기) 909조 1천억 원 [+13.1%] → (’22년 4분기) 1,019조 8천억 원 [+12.2%] (한국은행)

■ ’21년부터 시작된 기준금리 인상은 취약 개인사업자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심화

-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21년 8월말 인상(0.5% → 0.75%, +0.25%p)을 시작으로 ’23년 1월 3.5%까지 인상되었다가 현재(’24년 1월)까지 동결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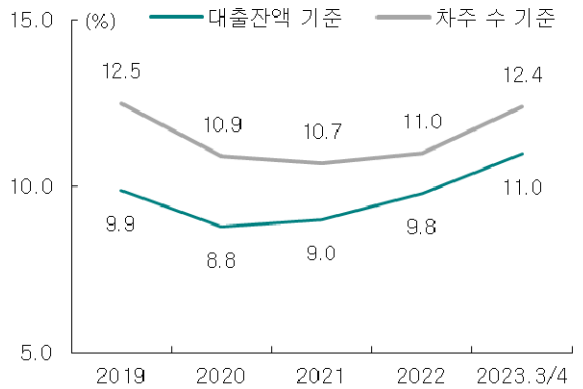
- 금리 인상이 지속되며 부채의 질적 수준은 코로나 19 시기보다 악화
  - 자영업자 취약차주(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이거나 저신용인 차주) 비중 :
    (차주 수 기준) (’19년) 12.5% → (’21년) 10.7% → ’23년(3분기) 12.4%
    (대출잔액 기준) (’19년) 9.9% → (’21년) 9.0% → ’23년(3분기) 11.0% (한국은행)

■ 소상공인의 부채 보유율 및 금액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통계청

■ 취약차주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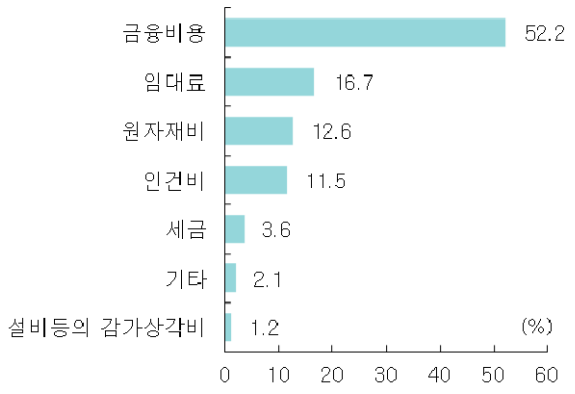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시산(가계부채 DB)

- 부채 상환은 아직 개인사업자 대다수가 경험하는 애로사항은 아니지만, 영세 사업자 중심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현실
  - '22년 소상공인이 주된 경영애로로 부채상환을 꼽는 비율은 9.6%로, 경쟁 심화(46.6%), 원재료비(39.6%), 상권 쇠퇴(37.7%) 보다 저조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 다만, '23년 소상공인연합회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52.2%는 부담을 느끼는 사업체 운영비용으로 '금융비용'(1위)을 꼽았으며, 89.7%가 현재 대출 상환 부담을 '힘든 수준'(매우 힘듦 + 다소 힘듦)이라고 평가

■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상생금융 요구가 사회적으로 확산되며, 최근 은행권은 개인사업자의 이자 환급을 골자로 하는 민생금융 지원방안 발표

- '23년 7월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의 과제 중 하나로 '상생금융 활성화 방안'을 선정하고 금융권의 금리인하·경영문화 개선을 촉구
- '23년 12월 은행권이 발표한 약 2조원 규모의 「민생금융 지원 방안」은 이자 환급을 골자로 하는 '공통 프로그램'과 '자율프로그램'으로 구성
  - (공통프로그램) 연 4%가 넘는 금리로 은행에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차주('23.12.20. 기준)를 대상으로 기준일 직전 1년간 기 납부한 이자 또는 '24년 중 납부할 이자를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환급 (1조 6천억 원 규모)
  - (자율프로그램) 소상공인 에너지요금 지원(하나은행), 서민금융진흥원·보증기관 출연(국민은행) 등 참여 은행이 자율적으로 지원방안 결정·집행 (4천억 원 규모)
- 한편, 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24.1.4.)도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을 다수 포함
  - 정부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의 일환으로서, ①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더해 ② 제2금융권의 이자 환급 프로그램(3천억 원 규모) 및 ③ 저리 대환대출 지원 강화(금리 7% → 5.5%) 방안(최대 9조원 규모)을 발표

■ 부담을 느끼는 사업체 운영비용



자료 : 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 지원정책 ('24년도 경제정책방향 발췌)

구분	주요 내용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 **고금리 경감** : 은행·제2금융권 이자 환급, 저리 대환대출 지원 강화 - **요금 부담 경감** : 영세 사업자 전기료 감면 - **세금 부담 경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現 8천만 원) 상향
전통시장 등 매출확대 지원	-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24上 40% →80%) - 공공부문/민간의 전통시장 선결제·선구매 - 온누리상품권 발행량 및 사용처 확대
재기지원 및 근본적 경쟁력 제고	- **재기지원** : 새출발기금 지원요건 중 코로나 요건 폐지 등 - **경쟁력 강화**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법 제정 추진

자료 : 기획재정부

■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은 개인사업자의 니즈에 부합하지만, 상생효과를 더욱 제고하기 위하여 비금융 차원의 노력도 부가될 필요

- 은행권의 민생금융 지원방안은 고금리를 부담한 개인사업자·소상공인에게 직접 이자를 환급해줌으로써 실제 비용 부담을 경감해준다는 점에서 의의

- 직접적인 보조금 지급 또는 저금리 융자 지원을 선호하는 소상공인 니즈와도 부합
  - 소상공인은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정책으로 보조금 지원(70.6%) > 융자 확대(33.4%) > 사회보험료 완화(16.7%)를 꼽음 (중소벤처기업부·통계청)

- 은행은 실효성 있는 컨설팅·정보 제공을 통해 경영·세무·노무·법인전환 등의 부문에서 개인사업자를 지원함으로써 상생금융의 효과를 더욱 제고할 필요
  - 개인사업자 사이에서도 보조금·자금 지원이 미봉책에 그친다는 인식이 있으며, 사업을 지속하기 위한 근본적·장기적인 지원에 대한 니즈가 존재[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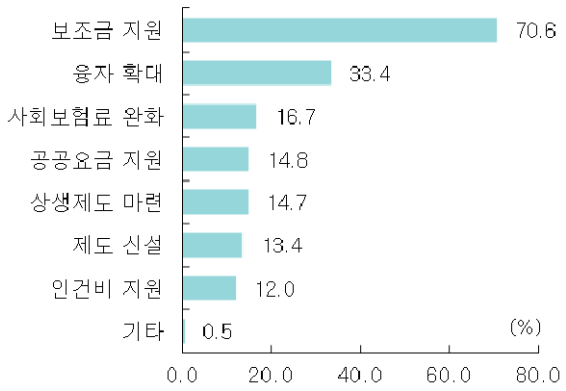
■ '24년에도 은행의 상생금융 움직임은 지속되며, 대상 및 규모 면에서 더욱 확대될 전망

- 주요 금융지주 CEO들은 '24년 신년사에서 디지털·글로벌·그룹 포트폴리오 강화 등 금융그룹 성장을 위한 전략적 목표뿐만 아니라 상생·사회공헌의 중요성을 강조

- 주요 금융그룹·은행은 개인사업자·서민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기존 ESG 또는 사회공헌부서를 상생금융 전담조직으로 확대 개편
  - 하나금융그룹은 ESG부문 산하에 '상생금융지원팀'을 신설하고, 하나은행은 기업그룹 내 '상생금융센터'를 신설하였으며, 타 금융그룹·은행 또한 유사한 행보

- 은행권의 사회공헌 규모는 증가 추세이며 향후에도 계속 증가할 전망
  - 은행권 사회공헌 지출 규모 : ('13년) 6,105억 원 → ('22년) 1조 2,380억 원 (CAGR +7.3%)

■ 재난 발생 시 필요한 소상공인 정책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 · 통계청

■ 주요 금융그룹·은행의 상생조직 동향

구분	그룹·은행	주요 내용
하나	하나금융그룹	ESG부문 산하에 '상생금융팀' 신설
	하나은행	기업그룹 내 '상생금융센터' 신설
국민	KB금융그룹	ESG 본부를 'ESG상생본부'로 개편
	국민은행	ESG본부 → ESG상생본부, ESG기획부 → ESG상생금융부 재편
신한	신한금융그룹	산한은행 내 '상생금융기획실'과 '사회공헌부'를 통합한 '상생금융부'를 신설하여 그룹·은행의 상생업무 총괄
	신한은행	

자료 : 각사, 하나금융경영연구소

[1] 이진아 외, 2021, "소상공인 금융니즈와 금융지원에 대한 정책적 제언", 한국창업학회지 16(1), 533-564

BNP Paribas, APAC 자산관리 사업 확대

이 재 완 연구위원

APAC 지역의 금융자산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BNP Paribas는 역내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서비스 제공 국가를 확대하는 등 사업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HSBC, NOMURA 등 글로벌 금융회사들도 아시아 지역 내 전략적 지역을 선정하고 관련 조직을 정비하며 자산관리 서비스 니즈 다양화에 대응하고 있다. 국내 금융회사들도 APAC 지역에서 사업 기회를 모색하기 위해 로컬 자산관리회사 및 핀테크와 제휴 등을 고려하고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진출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 BNP Paribas, APAC 지역 자산관리 사업 역량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1]

- 亞太(APAC) 지역의 금융자산 규모(일본 제외)는 약 55조 달러로 북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하였으며 향후 글로벌 자산관리(WM) 시장 성장을 주도할 전망[2]
  - 금융자산 연평균 성장률 전망('22~'27년) : 글로벌 5.3%, APAC 7.8%, 북미 4.7% 서유럽 3.9%

- BNP Paribas는 이처럼 유망한 APAC 지역에서 선두주자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경쟁사 출신의 인력을 포함한 20여명의 자산관리 인력을 충원하며 경쟁력을 강화
  - Credit Suisse를 포함한 Morgan Stanley 등 경쟁사에서 인력을 충원하였으며 확보한 인력은 홍콩, 싱가폴, 대만 등 아시아 전역에 걸쳐 배치

■ BNP Paribas는 APAC 지역에서 서비스 제공 국가 및 대상을 지속 확대

- BNP Paribas는 APAC 지역에서 약 800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22년 APAC 지역 강화 계획을 언급하고 적극적으로 확장
  - 향후 3년 동안 해외거주 중국 고객(Offshore Chinese)의 관리자산을 두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

- '23.4월 태국에 WM 사업장을 런칭하며 태국 역내 자산관리 시장에 진출하였으며 싱가포르 內 은행 플랫폼을 통해 태국 고객들의 글로벌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

- '23.8월 BNP Paribas 자산운용 부문은 중국농업은행의 자산관리 부문과 자산관리 합작법인을 설립하여 중국 소매 시장의 자산관리 수요 증가에 대응
  - BNP Paribas ABC Wealth를 설립하고 BNP Paribas 자산운용부문이 51%, 중국농업은행 자산관리부문(ABC WM)이 49%의 지분을 보유

|1| "BNP Paribas Hires 20 Private Bankers for Asia Wealth Expansion", Bloomberg, 2024.1.10

|2| "BCG GLOBAL WEALTH REPORT 2023 : Resetting the Course", BCG, 2023.6

■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인도, 중동 등 새로운 전략적 지역을 중심으로 WM 조직을 정비

- 글로벌 금융회사들은 보유 강점을 토대로 아시아 지역내 전략적 확대 지역을 선정하고 자산관리 서비스 니즈 다양화에 대응

- **(HSBC)** 중국과 인도의 프라이빗 뱅킹 확대를 포함해 아시아 전역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강화하는데 지속 투자
  - '23.7월 인도에서 WM Biz 런칭, '23.10월 Citi의 중국 소매 WM부문 포트폴리오 인수

- **(NOMURA)** 2년 안에 아시아와 중동 지역에서 40명 이상의 자산관리 전문인력을 고용해 고객 풀을 확대할 계획('23.8)
  - 향후 3년 동안 글로벌 자산관리 규모를 2배, 신규 고객 계좌를 1,200개 확대 목표

- **(Citi)** 싱가포르에서 2개의 자산관리 허브를 추가로 런칭하고 글로벌 자산관리의 요충지로서 싱가포르의 위상 강화를 추진('23.10)
  - 새로운 허브는 고객의 요구에 맞게 공간을 맞춤화 하고 디지털 플랫폼과 연계한 하이브리드 서비스를 제공할 방침

■ 국내 금융회사들도 APAC 지역에서 신흥 고객 선점을 위해 서비스 전략을 점검할 필요

- APAC 지역 금융자산 규모가 빠르게 성장함에 따라 국내 금융회사들도 새로운 사업기회 모색을 위해 인수합병 및 제휴를 고려할 필요
  - 네트워크 확보를 위한 로컬 자산관리회사의 인수합병, 디지털 자산관리 서비스 혁신을 위한 핀테크 기업과의 제휴 등을 고려

- APAC 지역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적 진출 지역을 선정하고 고객의 다면적인 요구사항 이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다양화 할 필요
  - 베트남, 필리핀 등의 국가에서는 기술 중심의 젊은 기업가들이 급속하게 성장

■ BNP Paribas의 APAC 지역 WM 비지니스

지역	내용
홍콩	- 지난 50년간 자산관리 서비스 제공 - 현지 고객 및 중화권 고객 대상
싱가포르	- 1928년부터 서비스 제공 - 현지 개인 및 기업고객 대상
대만	- 2005년 서비스 런칭 - 대만 국내 기업 및 기업고객 대상
태국	- 2023년 사업 유닛 출범 - 고액자산가 및 가문(family) 대상 - 싱가포르 센터를 통해 거래(book)

자료 : BNP Paribas Wealth Management

■ 지역별 금융자산 규모 전망

지역	2021 (조 달러)	2022 (조 달러)	2027 (조 달러)	CAGR (22-27)
글로벌	263.9	254.6	329.1	5.3%
북미	126.3	116.0	146.0	4.7%
APAC	54.1	55.4	80.8	7.8%
서유럽	50.4	49.0	59.2	3.9%
중동 및 아프리카	6.8	7.3	10.6	7.7%

자료 : BCG
주 : APAC은 일본 제외한 수치

지수형 보험의 활용과 기회

진 옥 희 연구원

글로벌 리스크 환경의 변화 속에 지수형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지수형 보험은 어떤 지표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건이 발생할 때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상품으로, 상품 설계 등에 어려움이 있으나 기존 보험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에 글로벌 보험회사는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타 기관과 협력하여 지수형 보험을 자연재해 및 사이버 공격 등 여러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지수형 보험을 국내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글로벌 리스크 환경의 변화 속에 전통적 손해보험의 한계를 보완하는 지수형 보험

- 지수형 보험(Parametric Insurance)은 사전에 정한 지표(지수)가 특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트리거(trigger) 사건이 발생할 경우 보험금이 자동으로 지급되는 상품
  - 손실에 대한 보상이 아닌 사전에 정한 금액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기존 보험과 차별화

- 독립성·신속성·유연성으로 대표되는 지수형 보험의 특징은 보험회사의 손해 사정 시에 발생하는 문제를 완화하는 장점으로 연계[1]
  - 트리거 사건은 제3자가 측정하고 보고한 매개변수(독립성)가 임계값을 충족하는지의 여부에 달려있기에 보험금 지급 관련 분쟁과 소요 기간 최소화(신속성)
  - 아울러 단일 혹은 다중 트리거 사건 설정을 통한 보험금 지급이 가능(유연성)

- ’24.1월 Allianz는 최근 대두되고 있는 사이버 위험 및 자연 재해에 있어 전통적 손해보험의 한계(보장 갭 등)를 언급하며 보완책으로써 지수형 보험을 제시[2]
  - Allianz는 ’24년 주요 리스크 요인 중 사이버 위험과 자연 재해를 1, 3위로 선정

■ 지수형 보험은 117억 달러 규모(’21년)로 재해와 사이버 공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 ’23.9월 지진 발생으로 Gallagher Re는 모로코 정부에 2.5억 달러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소규모 피해 외에도 국가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재난도 보장

- 특히,’23.12월 AXA Climate는 InsuResilience Solutions Fund(ISF)와 협력하여 토고 지역(주민 70만 명)에 지수형 홍수 보험 솔루션을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

|1| “Parametric Insurance: A Complement to Traditional Property Coverage”, AoN, 2023.9

|2| “Re-writing the underwriting story: How to navigate the complexities of modern risks”, Allianz, 2024.1

- 아울러 英 Intangic MGA는 AXA XL와 협력하여 공기업에게 사이버 공격에 의한 물리적 손실을 보장하는 지수형 보험 상품인 'CyFi 보험'을 최초로 제공
  - ① 피보험 회사를 대상으로 하는 악의적 활동 수준과 ② 그에 따른 가치 손실 규모라는 두 개의 트리거를 모두 충족할 경우 기존에 설정된 보험금을 지급

- 보험회사 전문 신용평가 기관인 A.M. Best는 지수형 보험 시장의 규모가 '21년 117억 달러에서 '31년 293억 달러로 세 배 가까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3]

■ 글로벌 보험회사는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여 지수형 보험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노력

- 지수형 보험은 사전에 정한 지수가 실제 피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베이시스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며, 트리거 설정 시 방대한 데이터가 요구되는 한계가 존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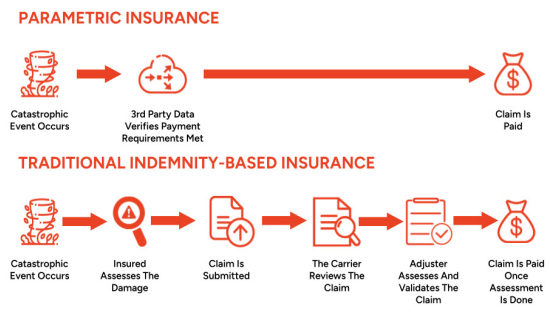
- 글로벌 보험회사는 여타 기관과 협력하고 다양한 기술을 활용하는 등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는 특히 농작물 지수형 보험 상품에서 두드러짐
  - '23.3월 Aviva Canada는 인슈어테크 기업 ChelseaPro와 협력하여 NASA의 강수량 데이터(지수)를 활용한 강수 피해 보험을 판매
  - '23.5월 AXA는 위성 데이터 제공업체 Planet Labs와 전략적 파트너쉽을 통해 작물 수확량과 손실을 추정하는 가뭄 보험 서비스를 제공

■ 앞으로의 성장이 기대되는 지수형 보험을 국내에서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

- '24년 이병래 韓 손해보험협회장은 신년사에서 미래 경쟁력 강화의 일환 중 하나로 기후 리스크에 대해 지수형 보험 도입을 제안[4]

- 국내 보험회사도 리스크 환경이 변화하는 가운데 신사업 개척 등을 위해 기존 보험 상품과 상호 보완적 역할이 기대되는 지수형 상품 도입을 고려

■ 전통적 보험과 지수형 보험 간의 지급 과정 비교



자료 : The National Alliance for Insurance Education&Research

■ 전통적 보험과 지수형 보험 비교

	기존 보험	지수형 보험
보상기준	보험사고로 손실 발생	지표의 임계점 돌파
보험금	보험사고로 인한 실손	기존에 정해진 보험금
베이시스 위험	보험계약 상 문제	모델링 정확성
상품구조	대체로 정형화	맞춤형

자료 : Swiss Re

|3| "AM Best predicts growth in parametric products", Captiveinternational, 2023.12

|4| "[신년사] 이병래 손보협회장 '실손·車보험 합리적 개선...신사업 강화'", SBS Biz, 2023.12

금리: 견조한 美 GDP에 경기 연착륙 전망 강화

윤 석 진 연구원

글로벌 금리는 견조한 美 경제지표 및 일본은행의 매파적 통화정책회의 영향 등에 상승했다. 국내 금리는 기대인플레이션 둔화에도 韓 4/4분기 GDP성장률 예상치 상회 및 대외금리 상승압력에 연동되며 반등했다. 美 4Q GDP 서프라이즈에도 당일 시장금리는 GDP물가지수 둔화로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며 경기적 요인보다 물가 방향성에 높은 민감도를 보였다. 최근 중국의 경기 부양·홍해 해상운송 차질 등으로 물가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어 금리 변동성 확대에 유의가 필요하다.

■ 글로벌 금리는 견조한 美 경제지표 및 BOJ의 매파적 통화정책회의 영향으로 상승

- 美 12월 소매판매·산업생산 예상치 상회에 이어 4/4분기 미국 GDP성장률 또한 3.3%로 서프라이즈를 나타내면서 美 경기 연착륙에 대한 시장 기대 강화
  - 美 실질GDP성장률(%, QoQ 연율화) : 23.2Q 2.1 → 3Q 4.9 → 4Q 3.3 (예상 2.0)
- 일본은행은 1월 회의에서 현행 완화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총재는 물가목표 달성 가능성이 증가했다고 평가하며 향후 마이너스금리 종료를 시사
- 1월 ECB는 금리 동결을 이어가고 인하 논의에 대해 시기상조로 언급했으나, 물가 둔화 추세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총재 발언에 유로존 금리 인하 기대 지속
- 글로벌 금리는 BOJ의 매파적 스탠스·美 경제지표 호조 등을 반영하며 상승
  - 미국채 2/10년물 금리(%) : 1.12일 4.14/3.94 → 19일 4.38/4.13 → 25일 4.30/4.12

■ 국내 금리는 韓 4Q 성장률 예상치 상회 및 대외금리 상승압력 등에 연동되며 반등

- 한국 4/4분기 GDP는 전기 대비 +0.6% 증가해 예상치(0.5%)를 소폭 상회했으며, 수출과 설비투자가 각각 2.6%, 3.0%(전기 대비) 증가하면서 GDP 성장세 주도
  - 韓 실질GDP성장률(%, QoQ) : 23.1Q 0.3 → 2Q 0.6 → 3Q 0.6 → 4Q 0.6
- 국내 1월 소비자 기대인플레이션은 3.0%를 기록하며 둔화 흐름을 이어간 가운데 소비자심리지수는 5개월 만에 장기 평균(100)을 상회하며 101.6pt로 회복
  - 韓 기대인플레이션(%, 향후 1년) : 23.11월 3.4 → 12월 3.2 → 24.1월 3.0
- 韓 금리는 기대인플레 둔화에도 불구 대외금리 동조화·GDP 예상치 상회로 반등
  - 국고 3/10년 금리(%) : 1.12일 3.20/3.31 → 19일 3.31/3.42 → 26일 오전 3.27/3.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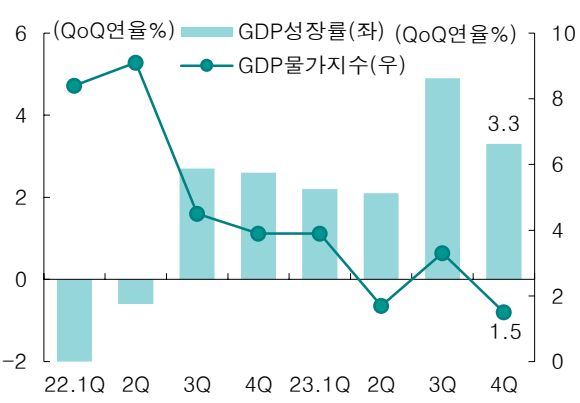
■ 美 4Q GDP 호조에도 하락한 시장금리는 채권시장의 높은 물가 주목도를 의미

- 지난 3/4분기 美 GDP가 예상치를 상회해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데에 이어, 4/4분기 GDP성장률(3.3%) 또한 시장의 예상을 크게 웃돌며 견조한 경기 흐름을 지속
  - 이는 시장 예상치 2.0%와 Atlanta Fed의 GDP Now 전망치인 2.4%를 크게 상회
- 단, 4/4분기 美 GDP성장률 예상치 상회에도 불구, 발표 직후 시장금리는 오히려 하락세를 시현하며 당일(1.25일) 美 2/10년 금리는 -7.4bp/-5.7bp 하락 마감
- 이는 美 4/4분기 GDP 발표 항목에 포함된 'GDP 물가지수'가 연준 목표 수준인 2.0% 이하로 둔화하면서 시장의 물가지수 예상치를 큰 폭 하회한 데에 기인
  - 美 GDP물가지수(%, QoQ 연율화) : 23.3Q 3.3 → 4Q 1.5 (시장 예상 2.3)
- 아울러, 이는 채권시장에서 기대하는 연준 통화정책 전환의 핵심 동인이 경기적 요인보다는 디스인플레이션 지속 여부에 의존해 형성되고 있음을 시사
  - 향후 시장금리는 美 경기 흐름보다 물가 둔화 향방에 높은 민감도를 보일 전망

■ 물가 경로 불확실성 감안 시, 1월 FOMC 전후 연준-시장 간 눈높이 조정에 따른 변동성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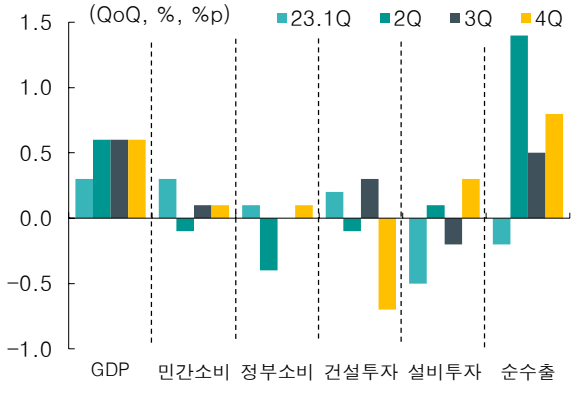
- 최근의 시장금리 되돌림 장세에도 불구, 금리선물시장에 반영된 연내 美 금리 경로는 6회 인하로 유지되고 있어 연준과 시장 간 시각차가 여전히 큰 상황
- 아울러 중국 경기 부양책과 홍해 해상운송 차질, 美 경제지표 호조 등에 의해 해상운임 및 유가가 상승세를 보임에 따라 향후 물가 경로의 불확실성이 증대
  - WTI 선물(USD/Barrel) : 1.2일 70.4 → 12일 72.7 → 18일 74.1 → 25일 77.4
- 1월 FOMC에서 연준의 물가 경계 발언 등에 따른 금리 변동성에 유의할 필요
  - 韓 국고채 3년, 10년 금리는 각각 3.20%~3.45%, 3.30%~3.50% 범위로 전망

■ 美 GDP 성장률 및 GDP물가지수 추이



자료 : BEA

■ 韓 GDP성장률 및 항목별 기여도



자료 : 한국은행

외환: 1월 FOMC 이후 방향성 탐색

오 현 희 연구위원

지난해 말 FOMC와 파월의장의 비둘기적 발언으로 3월 금리인하를 예상한 시장의 기대가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과 견조한 미국의 경제지표 등으로 후퇴하면서 달러 강세에 따른 원화 약세압력이 높아졌고, 지정학적 리스크 부각, 엔화와 위안화 약세 등이 가세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원화의 상하방 요인이 공존하며 좁은 레인지에서 등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오는 31일 예정되어 있는 1월 FOMC 회의에서 연준의 스탠스에 따라 방향성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원/달러 환율] 글로벌 달러화 강세 속 지정학 불안, 亞 통화약세 등이 맞물리며 상승

- 美 연준 인사들의 경계성 발언으로 조기 금리인하 기대가 되돌려진 가운데 지정학적 리스크 고조에 따른 위험회피로 美 국채금리가 반등하고 달러화는 강세 전환
  - 대만선거 결과로 양안갈등 및 미중갈등 위험이 높아진 가운데 홍해상 무력 충돌, 북한의 도발 등이 이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원화 약세 압력 상승
- 이러한 가운데 中 성장에 대한 우려감과 중화권 주가 급락에 따른 위안화 약세, 통화정책 민감도가 높은 엔화 약세 등에 동조되면서 1,346.7원까지 상승(1.17일)
- 그러나 이후 단기 급등 부담에 따른 당국 구두개입, 수출업체 네고물량, 뉴욕증시 상승에 따른 위험선호 등으로 상승폭을 축소하며 1,330원대 중후반에서 등락

■ [국제 환율] 연준 인사들의 매파적 발언 속 견조한 美 경제 지표 등으로 달러강세 지속

- 달러화는 연준 인사들의 금리인하 기대 축소 발언 속 예상보다 높은 CPI, 견고한 고용·소매판매, 소비심리 개선 등 양호한 지표 등이 잇따라 발표되며 강세 흐름
  - 다만, 中 증시 부양책 및 지준률 인하 소식에 따른 위험선호로 일시적으로 반락
- 유로화는 ECB 총재와 위원들의 금리인하 경계 발언 등에도 불구 글로벌 달러화 강세, 독일의 역성장(2023년 -0.3%), 유로존 소비심리 약화 등의 영향으로 약세
- 엔화는 美 국채금리 상승의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으나, BOJ의 정책 지속 결정에도 우에다 총재의 금융정책 정상화 의지 피력 등이 매파적으로 해석되며 반등
- 위안화는 中 소매판매 부진 등 경기둔화 우려 속 인민은행이 LPR에 이어 MLF 금리를 동결하자 약세가 심화되었으나, 지준률 인하 등 부양책 발표로 강세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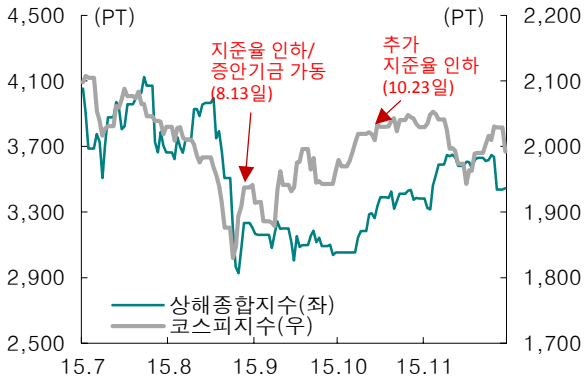
■ 경기회복 기대 약화에 따른 중국 증시 및 위안화 약세와 동조화되는 코스피와 원화

- 최근 中 경기 부진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의 미흡한 부양책 등으로 중화권 증시가 조정을 받고 위안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국내 증시와 원화도 영향
  - 부동산 침체, 내수부진, 디플레이션 등으로 中 경기 우려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당국 부양의지에 대한 의구심(대출금리 동결)마저 가세하며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 아울러 대만 선거에서 親美 성향의 라이칭더 후보가 당선되고 美 공화당 경선에서 트럼프의 약진이 나타나면서 미·중 갈등 우려가 확대된 점도 中 금융 불안 요인
- 뉴욕증시가 연일 상승세를 기록 중이나 중화권 증시 하락세로 국내 주식시장이 약세를 보였고 여전히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위안화에 동조되며 원화도 약세
- 이에 대응하기 위한 中 정부의 증시안정기금 등 증시부양책 검토 보도(23일)에 이어 인민은행의 지준율 50bp 인하가 발표(24일)되며 증시와 위안화 다소 안정
- 이러한 조치로 위안화와 연동된 원화 약세는 제한될 전망이나, 근본적으로 中 실물경기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위안화 및 원화 하방압력은 지속될 가능성

■ 1월 FOMC를 앞두고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며, 결과에 따라 환율 방향성이 결정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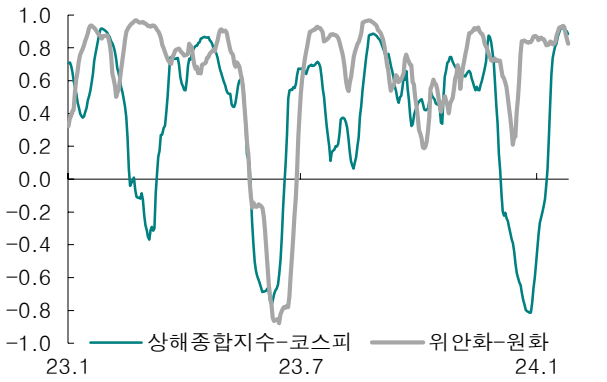
- 美 GDP 호조(4Q 3.3%)에 따른 연착륙 전망 상승, 비둘기적 ECB 정책회의 결과, 지정학적 위험과 중국 경제 우려 등이 원/달러 환율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단, 환율 상승에 대한 당국의 경계감, 월말 수출업체 네고물량 등이 상단을 제한하며 향후 2주간 원/달러 환율은 1,310~1,350원 수준에서 움직일 것으로 예상
- 한편, 최근 원화 약세의 가장 큰 요인이 연준 통화정책發 불확실성에 있는 만큼 1월 FOMC에서 나타날 연준의 입장에 따라 원화 향방이 결정될 전망

■ 과거 中 지준율 인하와 증안기금 가동 시 주가 향방



자료 : Bloomberg

■ 韓·中간 증시와 환율 상관관계



자료 : Bloomberg,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주 : 30일 이동 상관계수

부동산: 심리 위축, 부채 부담 커지며 하락 전환

하 서 진 수석연구원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매물 적체, 심리 위축으로 인해 전월 대비 하락세로 전환되었다. 1.10 대책으로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 시기 이연 등이 발표되었으나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해 단기간 내 시장 영향은 제한적이며 고금리 부담으로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지방에서는 매매거래 위축으로 인한 매물 적체 지속, 추가 하락 우려 심화, 투자수요 부진 등이 겹쳐 낙폭이 확대될 수 있다. 다만, 수도권 주요 지역은 대기수요가 두터워 낙폭이 제한적일 전망이다.

■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매물 적체, 심리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하락 전환

- 전국 주택 매매가격은 매물 적체, 심리 위축으로 인해 호가가 하향 조정되고 가격 조정된 물건 위주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전월 대비 하락 전환
  - 전국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 MoM) : 0.2('23.10월) → 0.04(11월) → -0.1(12월)
- 단독 주택은 상승폭 유지되었으나 자금 마련 부담이 큰 아파트와 심리 위축 영향이 집중된 연립주택은 하락폭 확대
  - 유형별 상승률(%, MoM, 11월/12월) : 아파트 0.04/-0.15, 연립 -0.09/-0.13, 단독 0.13/0.09
- 매매가격보다 가파른 회복세를 보였던 전세가격도 상승폭이 줄어들고 있으며 부채 부담 지속 등으로 상승세 둔화가 이어질 가능성
  - 전국 주택 전세가격 상승률(%, MoM) : 0.36('23.10월) → 0.27(11월) → 0.12(12월)

■ 1.10 대책의 제한적 효과, 고금리 부담 등으로 매매가격 하락세 지속될 가능성

- 준공 30년 이상 재건축 아파트의 안전진단 시기 이연, 지방 준공 후 미분양 구입 시 주택 수 제외 등이 포함된 1.10 대책이 발표되었으나 정책효과는 제한적
  - 각각 도시정비법, 지방세법 시행령 등의 개정이 필요해 단기간 내 추진은 난망
- 특례보금자리론 공급 종료, 스트레스 DSR 도입 계획('24.2월)으로 실수요의 추가 자금마련 부담이 증대되어 매수세 확대도 한계
  - DSR에 전세자금대출 이자도 포함될 수 있어(시기 미정) 부채 부담도 증대될 전망
- 심리 위축 및 시장 관망세 지속은 매매거래를 더욱 위축시켜 하락거래로 인한 매매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가능성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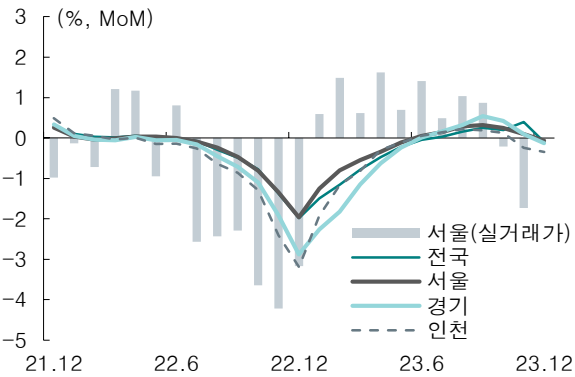
■ 매물 적체, 추가 하락 우려, 수요 부진 등이 겹쳐 일부 지방은 낙폭 확대될 소지

- 2023년 아파트 입주율은 수도권 평균 79%이나, 지방은 65%로 잔금을 치르지 못해 입주하지 못하거나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빈집인 매물이 적체
  - 2023년 아파트 입주율 평균(%) : 전국 67, 수도권 79, 지방광역시 65
- 추가 자금마련 및 고금리 부담에 주택 매매가격 심리는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어 수요기반이 약한 일부 지방은 매매가격 침체가 장기화될 우려
  - 주택매매가격 소비심리지수 : 108('23.10월) → 102(11월) → 93(12월) → 92('24.1월)
- 또한 수도권 미분양은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으나 지방 미분양은 증가했으며 지방(광주, 울산 등)에서 청약도 미달되고 있어 지방 분양수요 부진
  - '23.11월 미분양 재고(호/YoY) : 수도권 6,998/-32.5%, 지방 50,927/+6.9%

■ 다만, 서울 강남 등 수도권 주요 지역은 대기수요가 두터워 낙폭이 제한될 가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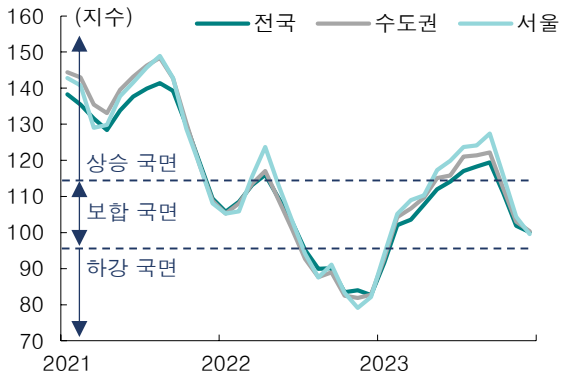
- 서울, 경기의 청약경쟁률은 타 지역에 비해 양호한 수준이며 수도권 대기수요가 두터워 시장 관망세 및 거래 위축에도 가격 낙폭은 제한될 소지
  - 서울/경기 청약경쟁률(배수) : 22.9/31.4('23.10월) → 8.1/111.6(11월) → 9.0/37.6(12월)
- 또한, 단기간 동안의 하락세는 계절적 비수기 및 심리 위축, 매매 거래 침체에 따른 숨고르기 국면일 가능성도 있어 지켜볼 필요
  - 월평균 매매거래량(만호) : 6.7('19) → 10.7('20) → 8.5('21) → 4.2('22) → 4.7('23.11월)
-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가 커질수록 매수세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나 부채 부담 지속, 관련 규제로 인해 당분간 가격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

■ 월간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



자료 : 한국부동산원(종합주택 매매가격, 공동주택 실거래가)

■ 주택매매시장 소비심리지수



자료 : 국토연구원
주 : 지수는 0~200사이의 값이며 100을 넘으면 가격 상승이나 거래 증가 응답이 많음을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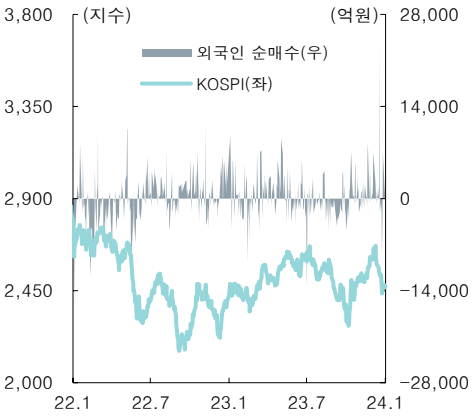
국내 금융시장

금리

단위: %	콜 (1일)	CD (91일)	산금채 (1년)	회사채 (AA-,3년)	국고채 (3년)	국고채 (5년)
'21년말	1.44	1.29	1.66	2.42	1.80	2.01
'22년말	3.38	3.98	4.17	5.23	3.72	3.74
12월말	3.91	3.83	3.69	3.90	3.15	3.16
1월 19일	3.53	3.68	3.54	4.06	3.31	3.36
1월 22일	3.52	3.68	3.52	4.03	3.28	3.32
1월 23일	3.47	3.68	3.53	4.04	3.29	3.33
1월 24일	3.45	3.68	3.54	4.05	3.30	3.34
1월 25일	3.46	3.68	3.56	4.06	3.31	3.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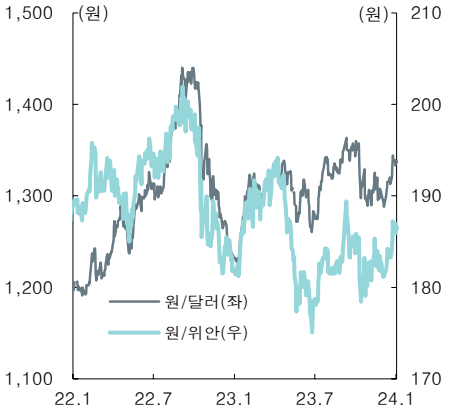
주가

	KOSPI (지수)	거래대금 (억원)	거래량 (백만주)	외인순매수 (억원)
'21년말	2,977.7	87,275	461	-2,184
'22년말	2,236.4	60,365	361	-1,437
12월말	2,655.3	94,189	460	7,017
1월 19일	2,472.7	91,745	519	7,028
1월 22일	2,464.4	84,199	388	3,001
1월 23일	2,478.6	80,294	472	1,411
1월 24일	2,469.7	74,465	395	726
1월 25일	2,470.3	81,243	357	457



환율

단위: 원	원/달러	원/100엔	원/위안	원/유로
'21년말	1,188.8	1,032.8	187.1	1,352.4
'22년말	1,264.5	950.3	181.5	1,349.0
12월말	1,288.0	911.0	181.2	1,425.1
1월 19일	1,339.0	903.8	186.1	1,458.8
1월 22일	1,338.9	904.4	186.1	1,457.2
1월 23일	1,333.4	898.7	185.9	1,446.7
1월 24일	1,337.0	905.7	186.9	1,454.7
1월 25일	1,335.8	904.2	186.3	1,44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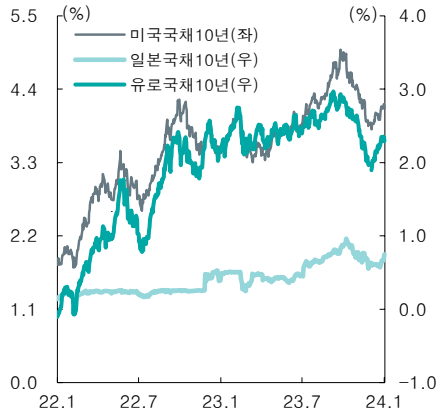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해외 금융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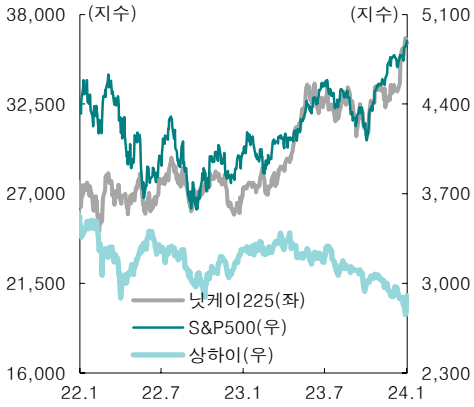
금리

단위: %	미국				일본	유로
	실효FFR	SOFR3월	국채2년	국채10년	국채10년	국채10년
'21년말	0.07	0.09	0.73	1.51	0.07	-0.18
'22년말	4.33	4.59	4.43	3.87	0.42	2.57
12월말	5.33	5.33	4.25	3.88	0.61	2.02
1월 19일	5.33	5.32	4.38	4.12	0.67	2.34
1월 22일	5.33	5.32	4.39	4.11	0.66	2.29
1월 23일	5.33	5.32	4.37	4.13	0.67	2.35
1월 24일	5.33	5.32	4.38	4.18	0.72	2.34
1월 25일	-	5.32	4.29	4.12	0.75	2.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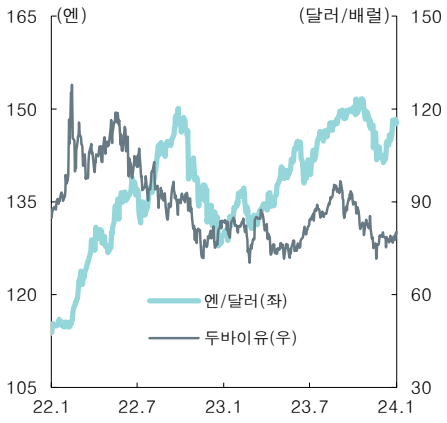
주가

단위: 지수	S&P500	닛케이225	상하이종합	Euro Stoxx
'21년말	4,766.2	28,791.7	3,639.8	4,298.4
'22년말	3,839.5	26,094.5	3,089.3	3,793.6
12월말	4,769.8	33,464.2	2,974.9	4,521.4
1월 19일	4,839.8	35,963.3	2,832.3	4,448.8
1월 22일	4,850.4	36,547.0	2,756.3	4,480.3
1월 23일	4,864.6	36,517.6	2,771.0	4,465.9
1월 24일	4,868.6	36,226.5	2,820.8	4,564.1
1월 25일	4,894.2	36,236.5	2,906.1	4,582.3



환율/상품

	환율		상품(유가 현물, 금 선물)	
	엔/달러(엔)	달러/유로($)	Dubai($/배럴)	Gold($/온스)
'21년말	115.09	1.138	77.2	1,814.1
'22년말	131.27	1.071	78.8	1,826.2
12월말	141.36	1.106	79.1	2,083.5
1월 19일	148.15	1.089	78.9	2,029.3
1월 22일	148.04	1.088	77.8	2,022.2
1월 23일	148.35	1.085	79.9	2,025.8
1월 24일	147.61	1.088	79.6	2,016.0
1월 25일	147.72	1.084	80.3	2,017.8



자료 : Bloomberg, 연합인포맥스

메 모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3호

등록번호 서울중, 다00037
등록일자 2011년 3월 21일

2024년 1월 26일 인쇄
2024년 1월 29일 발행

발행인 이승열
편집인 장보영
발행처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대표전화 2002-2200
홈페이지 www.hanaif.re.kr

인쇄 (주)광문당

본 지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견으로
하나금융경영연구소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홈페이지

카카오톡 채널

하나은행 하나금융경영연구소

하나금융포커스 제14권 3호

04538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6 하나금융그룹 명동사옥
Tel 2002-2200 Fax 2002-2610